

시찬띠와의 PP

#til/life/coaching

1차 회고

1. 작업한 내용 중 고쳐야하는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작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다.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PP를 하면 더 많은 토론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듯. 마감시간이 촉박한 과제를 주는 건 초보자에게 그닥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.
2. 시찬님과 이야기를 많이하면서 작업하고 싶었는데 그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. 코드를 보면서 질문을 많이하면서 본인의 생각, 의도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듯.
3. 시찬님 본인의 작업을 페어로 리팩토링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.